

초등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수업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장 은 연**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 수업을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음악과 친하기'와 '명곡과 친하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음악적 기능을 학습하기에 앞서 음악의 기본요소인 소리의 원리·리듬 익히기와 악기의 이해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서의 감상 제재곡과 이해영역의 내용을 심화시킨 감상수업이다. 본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음악수업의 내용상의 연계를 도모한 프로그램으로서 방과 후 음악수업에 적합한 통일된 커리큘럼을 제시하여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제어 :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음악교육, 문화예술교육, 포괄적 음악교육

차 례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II.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음악교육 프로그램 실태

1.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현황
2. 특기적성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III.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

1. 음악과 친하기
2. 명곡과 친하기

IV.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G00008).

** 춘천교육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구성의 모습 또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인구의 고령화·맞벌이 부부와 편부모 가정의 증가로 변화된 가족의 형태는 아동들의 생활과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학교는 이러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생활지도와 교육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과제를 위임 받는다. 또한 21세기 교육의 목표는 창의성 계발·다양화·특성화로 그 비중이 옮겨가면서 이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변모에 맞춘 교육서비스 제공과 사회 양극화 완화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난 오후시간에 특기적성·수준별 교과 보충 및 심화수업·진로지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출발하였다. 초기 방과 후 학교의 주요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수업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고, 현재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문화로 정착하였다. 특히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 음악수업은 정규 학교수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학생들의 학교교과 이외의 음악의 생활화 면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현실의 변화로 인해 영어·수학 등의 주요교과 관련 강좌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음악프로그램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방과 후 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 음악수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수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기적성 음악수업은 일반 사교육과 비교하여 교수방법과 교육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 아울러 방과 후 특기

적성 음악수업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 연계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학교음악교육이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음악활동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7 개정교육과정의 음악과 내용체계에 ‘음악의 생활화’ 부분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방과 후 학교 음악수업은 이러한 음악의 생활화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이점에 주목하여 학교음악수업과 방과 후 학교의 음악교육의 내용과 체제 면에서 연계를 시도한다면 학교음악교육의 당위성과 방과 후 학교 음악수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가지 악기 연주의 기능발달을 목표로 하는 사교육과 현행 특기적성 음악수업과 구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교음악수업과의 내용상의 연계성 그리고 통일된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목하여 방과 후 학교 음악수업을 위한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악기교습을 받기에 앞서 음악의 기본요소인 소리의 원리와 리듬을 익힌 후 악기의 원리 등을 통해 음악과 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현재 정규 음악수업에서 다루는 교과서의 제재곡과 이해영역을 고려한 감상수업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음악장르를 다양한 악곡과 활동을 통해 학습하며 함께 연주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의 변화과정을 점검하고 현행 방과 후 학교 음악수업의 실태를 살펴볼 것이

- 1) 일대일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과 비교하여 방과 후 학교의 음악수업은 그룹으로 진행되기에 오히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 연구범위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한 교육청 산하의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의 통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2차 문헌을 토대로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목표는 문헌²⁾상에 나타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에 알맞은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학교에서 행해지는 음악수업과 나아가 음악 전반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를 일깨워 음악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방과 후 학교의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그 중 대부분은 지역별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 이들 논문은 대부분 2000년대 초반까지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로서 각 강좌별 운영실태 및 지도안 개발에 치중하였다.

그 이후의 연구의 주제로서는 새로운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을 위하여 이선희(2001)는 코다이 교수법을 활용한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주목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곡을 단원 제제곡으로 하여 코다이 스펀 페이지의 기본적인 의의인 보고 부르기·듣고 부르기·듣고 적기 등을 수업의 주제로 삼은 교수방법이다.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은 음악회 및 학습 발표회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올바른 음악문화의 창조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동순(2003)은 리코더 연주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음악 표현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
- 2) Jutta Funk 외: Musik und Tanz fuer Kinder
 악기공부 & 소리공부, 서울 문화사
 김미숙: Classic 음악의 이해와 감상
 벤토빔: 악기여행

리코더 연주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을 심화하여 정규교과와의 연계성을 모색한 것이다. 최근 배영호(2008)는 초등학교 관악합주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내의 개별적인 방과 후 학교의 악기교습 프로그램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꾀함으로서 합주를 통한 어린이들의 음악교육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명지현(2008)은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뮤지컬의 교육적 의의와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연구와 차별되게 민경훈(2007)은 모든 예술영역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방과 후 학교 통합형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음악교육을 새로운 각도에서 활성화 한 것 등이 본 연구의 선행사례로 고려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한 가지 악기 중심의 음악교육보다 종합적이며 정규 음악교육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음악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가 제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음악의 기본적인 이해과정을 통한 악기연주의 기능숙달을 요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경훈의 새로운 통합형 프로그램은 이러한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각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연구의 목적이 음악교육과 다른 예술교육과의 통합적인 면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예술영역(미술·문학·무용 등)을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추구한다.

II.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음악교육 프로그램 실태

1.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현황

방과 후 학교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먼저 방과 후

학교에서 시행되는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방과 후 학교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방과 후 초등학교 시설 및 인적자원을 이용한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방과 후 교육활동은 자율적 활동으로서 학생의 취미·소질 그리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예: 컴퓨터·영어·글짓기·서예·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은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 학생의 소질·적성 및 특기신장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둘째 저학년 중심의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주민·청소년·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그 중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일반교과를 비롯하여 음악·미술·체육 등의 예체능 과목과 컴퓨터·바둑 등의 기타과목으로 구분된다.

2007년도 춘천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술교과 25%·일반교과 23.2%·기타 과목 21.5%·음악과목 18.6%, 체육과목이 11.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목은 대부분 영어교과로서 원어민 영어를 중심으로 현재 그 강좌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박은숙 2008, p. 24). 이 통계자료를 통해 2007년도 당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중 높은 비중(55.3%)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한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2006년도와 2008,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일반교과목의 강좌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어 원어민강좌·컴퓨터 등에 밀려 음악·미술 등의 예체능 강좌는 폐강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2009 서울 신미림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보고서). 더욱이 학력평가시험제도로 인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새로이 신설되는 등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비해 방과 후 학교의 특기적성 음악교육 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교육이 심각한 쇠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특기신장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를 간과한 것이 되고 또한 감소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이 절실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표 1> 서울S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부서 분포도 비교

영역	부서	2006	2008	2009
특기적성 프로그램	음악	5	5	3
	미술	3	4	1
	체능	2	6	3
	기타 ³⁾	5	10	4
학력신장 교과프로그램(수학)		0	0	10

위의 표를 참고할 때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주로 학습할 수 있었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2008년 총15개 강좌에서 2009년 7개의 강좌로 50% 이상 줄어든 반면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예체능 강좌에 비해 월등히 증가함으로(2009년 10개 강좌)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가 점점 사라져 가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2. 특기적성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특기적성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는 크게 국악과 서양음악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 기악과 성악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악은 일반적으로 기악 프로그램인 가야금과 사물놀이 또는 풍물이 제공된다. 서양음악 중 성악 부문은 합창과 동요부르기가 있으며 기악부문은 바이올린·플루트·하모니카·오카리나 등이 있다. 서울시 남부교육청 산하의 서울시 지원 방과 후 학교 중점학교의 특기적성 개설강좌를 살펴보면 음악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개설된 학교는 단소·플루트·바이올린·사물놀이·오카리나 등 5개

3) 원어민 영어, 컴퓨터 등의 강좌는 별도로 운영되어 위의 통계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 예체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감소한다.

강좌에 걸쳐 국악과 서양음악 모두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23개의 중점학교 중 8개 학교는 특기적성 음악프로그램을 전혀 개설하지 않았으며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학교에서 단 한 강좌의 음악프로그램만을 개설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 음악프로그램의 개설 여부는 같은 교육청 관할의 학교라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통념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http://www.nambuedu.seoul.kr>).

교육청이 제시하는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기능만을 익히기 위한 수업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의 목적과 내용도 한 가지 악기의 실기 능력 배양이 가장 우선적이다.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의 내용이 실기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현황과 교육의 목적에 대해 김 정선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바이올린 특기·적성교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영역은 실기능력의 배양으로 나타났는데 바이올린이 실기 위주의 학습이므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바이올린의 특성을 알고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하는 능력을 기른다. 바이올린은 어떤 악기이며 바른 연주법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익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김정선 2008, p.12, 7). 이는 특기적성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최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음악교육은 이전에 음악적 경험⁴⁾이 없는 학생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악기수업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교습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음악교육의 실정은 한 가지 악기를 익히기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뿐 음악이론·음악성 개발 등의 기본적인 음악교육은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실제 수업담당 강사들이 현행 실기 중심 수업에 있어서 별도의 이론지도와 감상수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수업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정선 2004, p. 38). 또한 악기구입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도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음악수업을 받을 수

4) 악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음정을 듣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이상은 현재 실행되는 악기교습 위주의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다. 그 밖에도 악기수업을 받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 이유는 고학년이 되면서 여가시간의 부족과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흥미의 상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실생활과 친밀한 음악교육·학교교육과정의 음악수업과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수업과의 내용상의 연계가 이루어진 음악교육이 도입된다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수업의 당위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악곡의 접촉과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갖는 데 있다’(2007 개정교육과정 음악과 목표). 또한 음악은 어린이들이 향유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음악과 친숙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음악의 주요 매체인 소리에 민감해져야 하며 악보라는 상징체계를 이해함에서 출발한다. 이 점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음악을 어려워하고 거리감을 갖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어린이들이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수업에서 음악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음악을 즐기는 가운데 음악적 감수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음악과 친하기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음악의 기본 요소인 소리와 리듬의 원리를 몸으로 익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수업의 목표를 둠으로서 음악과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의 명칭을 ‘음악과 친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수업의 경험이 적은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서 초등학교 1-2학년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며 장차 악기교습을 받기 위한 학생을 위한 준비단계의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 음악수업의 내용체계는 음악의 가장 기본요소인 소리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거쳐 음악의 규칙성인 리듬과 음정을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 음악수업의 내용은 현재 2007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즐거운 생활의 ‘음악 만들기’ 영역 중 소리탐색에 해당하는 내용과의 연계 그리고 그 심화를 고려한 것이다. 즉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제안되는 특기적성 음악수업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놀이와 표현활동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리듬과 음정의 습득을 위해 음악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악보라는 상징체계의 학습은 미래의 독자적인 음악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 때 정규 교육과정의 즐거운 생활교과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음악개념을 악보라는 상징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내용상의 심화를 시도한다. 그 이후에 직접적인 악기를 다루기에 앞서 다양한 악기의 구조와 종류를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음악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틀을 갖출 것을 본 프로그램은 제안한다. 예를 들면, 악기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 수업에서 모조악기 만들기 등과 같은 미술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 악기는 각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악기를 대상으로 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소리와 리듬 수업 단계에서는 다양한 물체·사물·환경의 소리는 물론 각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악과 성악의 이해, 나아가 두 매체 사이의 균형적인 조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음악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

는 악기를 선택하여 앞으로 연계되는 악기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프로그램의 원리 및 특징

방과 후 학교의 기본 교육기간은 일반적으로 주1회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주1회 1년을 위한 24차시 프로그램이나 경우에 따라 한 학기(주2회)를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업의 목적은 소리와 음악의 관계에서 상상력을 일깨워 음악을 이해하고 나아가 창의성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소리에 대한 수업을 통해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활동내용 중 ‘음악만들기’의 소리탐색에 관한 주제의 다양성과 내용의 질적 수준을 강화할 수 있다. 학습자는 소리를 스스로 체험하고 발견하여 그 개념을 언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때 이해한 개념을 각각의 소리와 상황에 따라 자신만의 창의적인 소리를 만들고 신체표현과 함께 적용하는 단계가 마지막 과정에 해당한다. 신체표현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음악적 개념을 구체적인 신체표현으로 시도하면서 음악과 무용을 연계한 포괄적 음악성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도표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표 2> 프로그램의 체계화

음악적 내용	1단계 소리	2단계 리듬	3단계 악기이해
활동순서	체험 → 개념이해 → 적용	체험 → 개념이해 → 적용	체험 → 개념이해 → 적용

위의 표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은 음악의 내용인 소리·리듬·악기의 이해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3>의 활동주제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인 동시에 아동들이 익혀야 할 언어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활동내용은 소리·리듬·악기를 듣고 경험하는 것과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신체표현 등을 통하여 창작하는 모든 적극적인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때 <표 2>가 제시하고 있는 체험-개념이해-적용의 세 단계는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은 물체와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체험하고 또 이해한 개념의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낸다. 이를 위해 교사는 소리와 리듬영역 수업에서 먼저 다양한 예시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 이때 아주 쉽고 간단하며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음악적 예로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인 소리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리듬과 음정을 익히고 음악에 대해 친숙해진 단계에서 악기의 이해과정으로 들어간다. 악기의 이해는 모든 악기의 종류와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며 실제로 모조악기 만들기를 통해 보다 직접적인 악기체험의 시간으로 음악과 미술 교과의 만들기를 통합한 포괄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다음은 각 단계의 실질적 학습내용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소리탐색’ 영역은 6개의 활동주제로 나뉘어 소리의 종류·생성·성질·기능·소리와 음악·음이름의 단계로 구성된다. 음악의 주요 매개체인 소리의 속성을 파악하고 음악으로 발전하기까지의 단계를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익혀나가는 시간이 된다.

두 번째 영역인 ‘리듬알기’의 활동주제는 마찬가지로 6개의 영역으로 규칙적인 박·다양한 리듬·리듬청음·리듬기호·리듬창작·음악과 리듬으로 구성된다. 앞서 소리탐색과정에서 발견한 소리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리듬체계를 학습하는 단계이다. 최종적으로 리듬학습은 목소리와 타악기를 활용하여 연주와 창작의 단계로까지 이어진다.

세 번째 ‘악기의 이해’ 영역은 총12차시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접하기 쉬운 타악기·관악기·현악기·건반악기의 순서로 악기의 종류와 구조를 이해하고 모조악기 만들기를 통해 악기이해의 수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악기의 소리를 듣고 음색을 구별하고 실물악기를 보고 만져봄으로서 악기의 구조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특히 모조악기 만들기를 통해 악기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악기와 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때 음악과 글쓰기(문학)를 연계한 수업내용으로 각 악기의 음색을 간단한 문장이나 동시로 표현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앞으로 악기수업을 받게 되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적합한 것이지만 장래 악기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음색’ 부분을 위한 독립적인 학습단계의 역할도 한다. 악기에 대한 수업은 각 학교에서 악기수업을 담당하는 전공강사와 연계하여 해당 악기의 선별을 통해 진행할 때 더욱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음악과 친하기’ 차시별 수업 프로그램 예시 안

차시	영역	활동주제	활동내용 ⁵⁾
1	소리탐색	소리의 종류	순수한 음, 고른 음, 시끄러운 음 구별하기: 상자에 숨긴 물건 소리 듣고 알아맞히기 높은 음, 낮은 음, 중간 음/ 사람소리, 동물소리, 환경소리 듣고 발표하기-듣는 연습, 소리내기
2		소리의 생성	소리의 생성원리
3		소리의 성질	간단한 스피커 사용하여 소리의 크기 경험/ 배음, 큰소리, 울리는 소리 내기 듣기와 소리크기의 관계 경험 소리의 높낮이, 썸여림, 길이 조절하기-그림으로 표현하기 음색탐험, 밝은 음악/어두운 음악
4		소리의 기능	주변에서 소리의 역할 찾기, 다양한 소리 만들기, 소리로 계절 표현하기 틀린 소리 말로 표현하기
5		소리와 음악	음을 듣고 구별하기 단성, 다성음악 듣고 구별하기/ 돌림노래 부르기
6		음 이름	각 소리에 따른 음이름 붙이기, 음정관계 이해하기, 몸계명 노래 부르기 악보로 읽고 쓰기-기호화/ 신체로 반응하기

5) 각 활동에서 소리의 원리, 기능, 종류의 이해와 실제 음을 듣고 반응하기를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차시	영역	활동주제	활동내용 ⁶⁾
7	리듬알기	규칙적인 박	박에 대해 반응하기 주변의 규칙적인 소리 찾기(북소리, 시계소리) 박자와 박의 관계 경험하고 기록하기
8		다양한 리듬	일상적 언어로 리듬 말 만들기 리듬 풀 익히기-신체로 표현하기
9		리듬 청음	리듬이 있는 다양한 소리 듣고 반응하기 리듬 모방하기-신체표현, 리듬악기 연주하기 2학년 교과서 '오는 길' 적용
10		리듬 기호화	다양한 리듬과 리듬음표와 연결하기 음표 찾기 게임 리듬음절 익히기
11		리듬창작	새로운 리듬 말 창작하기 리듬, 신체 오스티나토 연주하기 노래부르며 리듬악기반주하기
12		음악과 리듬	음악을 듣고 주요 리듬풀 알기 음악 듣고 함께 리듬반주하기
13	악기의 이해	악기 안내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와 사진 연결하기 좋아하는 악기, 이유 말하기 악기 실물 보고 소리 듣기 장난감 교향곡 듣고 악기 알아가기
14		타악기 체험	다양한 타악기 연주해보기, 소리의 차이점 알기 주변의 사물 타악기로 활용하기
15		타악기 연주	악기의 종류에 따른 음색 구별-감상곡을 바탕으로. 리듬반주하기 악기와 어울리는 동물, 인물, 상황 묘사하기 리듬악기노래 적용
16		악기의 종류-관악기	관악기의 구조 이해하기-실제 악기를 중심으로 소리 생성의 과정 듣고 보기
17		악기의 구조-관악기	리코더를 통해 관악기의 구조 이해하기 목관악기와 금관악기의 구조 익히기 소리의 생성과정 알기

차시	영역	활동주제	활동내용 ⁷⁾
18		모조악기 만들기	고무호스, 플라스틱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모조관악기 만들기
19		악기의 종류-현악기, 건반악기	악기의 종류에 따른 음색 구별-감상곡을 바탕으로. 악기와 어울리는 동물, 인물, 상황 묘사하기
20		악기의 구조-현악기, 건반악기	다양한 현악기와 피아노, 오르간의 구조 알기 건반악기의 음의 높낮이 원리 알기
21		모조악기 만들기	고무줄을 이용한 음의 높낮이, 음색 경험하기 기타 줄을 활용하여 간단한 현악기 만들기 활을 사용하여 연주법 익히기
22		건반 만들기	전지에 건반 그리기 건반악기 연주 놀이
23		악기와 음악	모든 종류의 악기를 익힌 후 각 악기의 독주곡 감상 협주곡에서 악기 구별하기/ 동영상 감상
24		종합화	오케스트라 편성알기 합주곡 듣기 자신이 원하는 악기 정하기, 이유 발표하기

2. 명곡과 친하기

현재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은 같은 악기강좌 내에서도 각 학교에 따라 통일된 교재와 교육과정 없이 형편이며 수업의 내용은 각 담당 강사에 의해 임의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번째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곡

- 6) 각 활동에서 소리의 원리, 기능, 종류의 이해와 실제 음을 듣고 반응하기를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 7) 각 활동에서 소리의 원리, 기능, 종류의 이해와 실제 음을 듣고 반응하기를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을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감상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과 친하기’ 후속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정규 교육과정의 음악수업에서 감상은 주요 음악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 감상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현행 방과 후 학교 악기교습 음악수업에서도 음악감상은 필요한 것이지만 시간적·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김정선 2004, p. 30). 더욱이 특기적성 음악수업의 내용은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연관성이 미흡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음악교육 커리큘럼인 동시에 심화된 음악감상 수업을 위한 감상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음악감상은 정규 음악수업에서 한 차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감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활동과 연계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시간과 교사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 제시하는 ‘명곡과 친하기’ 음악수업은 정규 음악수업의 감상부분을 보충하고 학생들에게는 감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음악 감상수업에서 포괄적인 음악성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학생들은 음악의 이해와 각 활동 영역간의 연관성을 경험하며 음악가적 속성인 비판적 감상·연주·창작의 세계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임미경 외, 2009, pp. 327-350).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곡을 중심으로 감상곡의 일부분 또는 주제선율을 각자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함께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그럼으로써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학생과 악기교습을 받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병행 할 수 있으며 합주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

다음은 현행 초등학교 5-6학년⁸⁾ 교과서에 있는 곡을 중심으로 한 음악

8) 3-4학년을 위한 감상 프로그램이 ‘음악과 친하기’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의 연계성이 더 적합하나 2007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개편으로 인하여 5-6학년 교육과정을 적용하였다.

감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감상곡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음악의 이론적인 부분과 다양한 활동⁹⁾의 연계를 고려하였으며 같은 장르의 다른 감상곡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전체 24차시, 11개 영역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도입·형식·종합화를 제외한 9개 영역은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의 감상곡의 모든 장르를 포함하였다. 감상하게 될 악곡의 순서는 우선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안에서 악곡의 연주형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아래의 <표4>가 제시하고 있는 수업계획안은 영역별로 감상곡의 종류와 연계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1차시 도입영역은 학생들의 감상곡에 대한 음악적 경험과 현재의 음악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을 들려줌으로서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며 음악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때 음악을 듣고 신체를 통해 표현하며 주선율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고 리듬악기를 이용하는 리듬반주 활동은 이어지는 이후의 모든 영역의 감상곡에 적용이 가능하다.

2차시 수업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중 ‘형식’을 주제로 한다. 음악의 종류는 다양한 악기의 사용·음악의 쓰임새 그리고 악곡의 구조에 따른 형식으로 구분되는 점을 직접 악곡을 듣고 구별하는 시간이다.

3차시부터 진행되는 수업의 내용은 성악곡에 해당하는 오페라·오라토리오·가곡과 기악곡인 교향곡·협주곡·독주곡·이야기와 음악·편곡의 순으로 이어진다. 각각의 음악장르는 우선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곡을 중심으로 악곡의 종류와 형식을 학습한 후 후속차시에는 같은 장르의 다른 감상곡을 경험한다. 악곡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악곡에 속하는 음악형식을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학습한다. 각 감상곡의 주제선율과 친숙한 선율을 학생들이 창작한 가사와 함께 노래하거나 각각 연주 가능한 악기로 함께 연주하며 합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로써 감상수업은 단순히 수

9) 이미 다른 예술 영역과의 통합을 주목적으로 하는 음악 수업 안이 연구·발표되었으나 본 연구는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다른 영역의 활동을 부수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할 수 있다(민경훈 2007, pp. 199-206 비교).

동적인 감상수업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연주와 신체표현, 창작의 범위까지 포함한다. 그로 인해 ‘음악과 친하기’ 프로그램에서 시도한 체험 → 개념이해 → 적용의 단계를 이 프로그램에도 응용할 수 있다.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므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활동을 최대한 수용하고 수업의 활동내용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이야기가 있는 음악’의 학습단계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대본·의상·음악연주를 기획하여 간단한 음악극을 공연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기존의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음악수업의 악기 지도교사와의 상호 정보교환 및 조언을 구하는 것도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인 점을 고려해 음악감상과 글쓰기를 연계한 활동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간단한 예로서 단순한 감상문 형식의 글쓰기에서 벗어나 음악을 듣고 각자가 제목정하기·떠오르는 주제로 말풍선 만들기·감상한 곡을 바탕으로 간단한 드라마 대본을 만들고 배경음악으로 활용하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 ‘명곡과 친하기’ 5-6학년 감상프로그램 수업 예시 안

차시	영역	감상곡	연계활동
1	도입	친숙한 명곡 듣기	광고, CF, 지하철, 학교 등 학교에서 들었던 익숙한 곡 들려주기
2	음악의 종류	장르별 음악 듣기	음악의 종류와 쓰임새 알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종류 소개하기 오페라, 교향곡, 가곡, 독주곡, 실내악
3	오페라	모차르트 <요술피리>	오페라의 생성, 발전과정, 다양한 음악극 종류 음악장르-서곡, 아리아, 레치타티보, 이중창, 합창 등의 요소 알기, 감상하기 각각의 장르 연주하기
4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	다른 오페라와 요술피리의 차이점 알기

차시	영역	감상곡	연계활동
5	오라토리오	헨델 <메시아>중 <할렐루야>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의 차이점 오페라의 합창음악 듣기-베르디 <아이다>, <리콜레토>, <라 트라비아타> 합창 함께 불러보기
6	가곡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방아간 아가씨>	이야기가 있는 노래 이해 시와 노래의 관계 발표, 우리나라의 가곡 알기
7		슈만 <시인의 사랑>	
8	교향곡	하이든 <놀람 교향곡>	교향곡 알기 변주곡 이해하기 여러 형태의 변주 창작하기
9		베토벤 <운명 교향곡>	소나타 형식 이해하기 주제와 주제작업/ 창작하기
10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주제음악 연주하기 공통요소/ 다른 점 발견하기
11	협주곡	비발디 <사계> 헨델 <하프 협주곡>	함께 연주하는 악기 알기 합주부와 독주부 구별하기/ 시와 음악 알기 음악으로 묘사하기 자신의 악기로 주제선을 연주
12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라 캄파넬라>	협주곡의 발전 독주악기의 역할/ 광고음악의 다양한 예 발표
13	독주곡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피아노 독주곡의 종류 론도 형식 이해 신체표현
14			독주회 리듬/ 선율 론도 창작
15		슈만 <트로이메라이>	성격소곡 이해 주제선율에 가사 붙이기 영화 속 음악감상

차시	영역	감상곡	연계활동
16	이야기와 음악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발표 각 악장별 특징 알기
17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세익스피어 희극 <한여름 밤의 꿈> 발표 음악의 묘사적 성격 알기 결혼 행진곡과 다른 행진곡 이해
18		그리그 페르균티 <아침><솔베이지 노래>	페르균티 이야기 발표 두 음악의 분위기 이해 음악적 구성요소 알기
19	춤곡	라벨 <볼레로>	악기편성을 통한 셈여림 이해 셈여림을 살려 주제선을 연주하기 셈여림을 신체표현하기
20		바흐 <G 선상의아리아>	300년 전 사람들의 춤곡 알기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 박자에 따른 다양한 춤곡 이해
21	표제음악	드뷔시 <바다>	바다 이미지 표현요소 알기 화음이해-화음 연주 다른 표제음악 듣기
22		엘가 <사랑의 인사>	당김음 반주 듣고 연주하기 선율 함께 연주하기/ 노래부르기
23	편곡	파헬렐 <캐논 변주곡>	캐논 변주곡의 다양한 형태 듣기 편곡 이해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기 주제 선율 연주
24	종합	감상, 연주, 창작 종합하기	감상곡과 관련된 퀴즈퍼즐, 골든벨 감상곡 중 한곡 선정하여 즉흥 리듬반주와 함께 연주하기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방과 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의 새로운 프로그램, 곧 ‘음악과 친하기’와 ‘명곡과 친하기’를 제시하였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음악적 기능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수업형태에서 벗어나 음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경험을 음악수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음악교과의 특수성으로 인해 악기를 다루어본 경험이 없거나 평소 고전음악을 많이 접해 본 기회가 없던 학생들에게 음악은 매우 낯선 영역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음악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좀 더 다가가기 쉬운 음악수업이 될 것이며 또한 악기교습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기능적인 연마 이상의 음악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시켜줄 것이다.

‘음악과 친하기’ 프로그램은 첫째, 기존의 기능중심 음악교육과 달리 음악의 가장 기본 요소인 소리와 리듬을 집중적으로 이해하며 경험하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아동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한 후에 음악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체험·이해·적용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악기를 배우는 학생과 장래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악기의 구조 익히기와 모조악기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연주하는 또는 연주하게 될 악기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길을 제공해 준다.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하기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오르프 교수법·코다이 교수법·달크로즈 교수법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수업진행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에 대한 체험-개념이해-적용의 세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놀이를 통하여 음악을 즐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익힌 개념을 적용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음악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면서 음악의 생활화를 이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상수업은 학생들에게 수동적인 수업태도와 인내심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감상 수업은 이러한 전제조건으

로 인해 학생들은 흥미를 상실하였으며 많은 시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 수업에서도 일반적으로 한 가지 악기교습을 위한 수업이나 음악감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상의 이유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음악감상은 필요한 음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실행하기 어려운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행해지는 감상수업의 제재곡은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감상곡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가 제시하는 ‘명곡과 친하기’ 프로그램은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감상수업을 학생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방과 후 학교의 음악수업과 교육과정의 내용상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과서의 제재곡에 대한 단순한 감상시간이 아니라 악기연주가 가능한 학생은 악기와 함께, 신체악기 연주 또는 노래 부르기와 함께 감상곡을 재구성하여 완성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즉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악곡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학생들이 음악가적 기능을 충분히 연마하고 발휘하도록 고려하였다. ‘음악과 친하기’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체험-개념이해-적용의 학습단계를 감상수업에서도 사용함으로써 음악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의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수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적이며 통일된 교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위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안을 후속연구로 계획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교재의 개발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음악수업을 담당할 교사의 확충 또는 재교육,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방과 후 학교의 음악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며 나아가 음악교육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실현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김미숙(2007). Classic 음악의 이해와 감상. 협신사.
- 김정선(2004).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김주경(1999). (들으며 깨닫는)신나는 음악감상.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명지현(2008).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한 뮤지컬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주.
- 민경훈(2007). 초등학교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방과 후 학교’를 위한 통합형 음악교육의 수업안 개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7, 199-206.
- 박문지(2007). 소리탐색을 통한 창안악기 만들기과 음악표현 연구: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충북.
- 박은숙(2008). 방과 후 학교의 음악교육활동 실태분석 연구 -춘천시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춘천.
- 배영호(2008). 초등학교 관악합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4. 5. 6학년 관악합주단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석문주(1999). 교실에서의 음악감상. 서울: 교육과학사.
- 이선희(2001).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동순(2003). 리코더 지도를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음악표현 능력신장 방안.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임미경, 조순이, 현경실, 김용희, 이에스터 (2010). 음악교수법. 학지사.
- 조석희(2004). 2005년도 교육청 영재 심화 교수-학습자료 : PVC파이프로 악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
- 벤토빔, 아타라, 보이드, 더글러스, 김현숙: 악기여행 : 우리아이에게 알

맞은 악기 선택법. 서울. 이치 2004.

서울 신미림 초등학교. 2009 방과 후 학교 운영보고서.

Keuchel, Susanne(2007), *Kulturelle Bildung in der Ganztagschule*, Bonn: Zentrum fuer Kulturforschung.

Jutta Funk et al. (2007), *Musik und Tanz für Kinder*. Mainz: Schott.
<http://www.nambuedu.seoul.kr>

ABSTRACT

Untersuchung der Musikprogramme fuer die Nachmittagsschule in der Grundschule

Chang, Eun-Un

Dieser Aufsatz untersucht zwei neue Musikunterricht-Programme für Nachmittagsschule in der Grundschule. Die Programme heissen 'Kennenlernen der Musik' und 'Kennenlernen der berühmten Musikwerken'. Das Ziel der Untersuchung ist das Anbieten der neuen Musikprogramme für den Musikunterricht der Nachmittagsschule. Die hier vorgestellten Programme werden von der bisherigen privaten Musikerziehung und dem Musikunterricht der Nachmittagsschule differenziert, die sich ausschliesslich an musikpraktischen Fertigkeiten orientieren. Andererseits werden die neuen Musikprogramme mit dem schulischen Musikunterricht inhaltlich verbunden und bieten einheitliches Curriculum für Musikunterricht der Nachmittagsschulen an. Die erste Schritt der Untersuchung stellt die Situation des Musikunterrichts der Nachmittagsschulen dar. Dafür werden die Daten der Vorbildschulen von Süd-Schulbehörde in Seoul verwendet. An Hand der Sekundärliteratur werden musikinhaltliche Probleme des Musikunterrichts angeschnitten und zur Verbesserung werden die zwei neuen Musikprogramme dargestellt. Das erste Program "Musik-Kennenlernen" führt Kinder in die Welt der verschiedenen Klänge, der Rhythmen und der Instrumenten ein. Die ersten und zweiten Schuljahr-Kinder lernen die Musikelemente durch Spielen, bevor sie ein Musikinstrument lernen. Das zweite Programm "Kennenlernen der berühmten Musikwerken" schliesst als ein

Musikhören-Programm den Nachmittags-musikunterricht an dem regulären Musikunterricht-Curriculum an. Dieses Program verbessert und vertieft den jetzigen oberflächlichen Musikhören-Unterricht nicht nur mit Repertoires der Schulmusikbücher und Musiktheorie, sondern auch mit anderen umgänglichen Repertoires. Die Untersuchung bietet Musikunterricht der Nachmittagsschule ein einheitliches Curriculum und musikinhaltliche Korrelation zwischen des Schulunterrichts und Nachmittagsschulunterrichts. Die neuen Musikprgramme dieser Untersuchung nehmen die Musikwerke komprehensiv und tragen dazu bei, dass die Kinder musikalisch praktische, theoretische und sinnliche Fertigkeiten entwickeln. Das Lernprozess des ersten Programms 'Erfahren-Verstehen der Fachbegriffe-Verwendung' gilt auch für das zweite Programm. Dieses Lernprozess hilft, dass die Kinder Musik natürlich und spielerisch lernen, erfahren und die umfassende Musikalität entfalten. Zum Schluss beabsichtigen die beiden Programme, dass die Musikerziehung nicht nur am Nachmittagsschule, sondern auch am regulären Schulcurriculum wieder lebendig und zielmässig entwickelt.

Key Words : after-school, talent aptitude education of music, culture-art education, comprehensive music education

투고일: 2010년 3월 30일, 심사(수정): 5월 28일(6월6일), 게재확정일: 6월 16일